

4 (第81回—第2次)

<p>기를 들으세요. 表決을 원하시면 表決을 해 드리겠습니다.</p> <p>(場內 騷亂)</p> <p>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人事에 관한 件은 討論 없이 表決하도록 돼 있습니다. 이 점을 諒解하시고 會議進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人事에 관한 件은 討論 없이 表決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. 法 條項으로. 그러니까 이대로 합시다. 이 점 諒解하시고 會議進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「議事進行發言 주세요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아, 글썄 아까 議事進行發言 다 주었으니까 이것은 討論 없이, 人事에 관한 件은 表決을 하게 돼있습니다. 表決. 法대로, 그러니까 法대로 하자고.</p> <p>그러면 本 案件을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	<p>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을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選任하고자 하는데 贊成을 하시는 분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「異議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(場內 騷亂)</p> <p>(起立 表決)</p> <p>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起立 表決)</p> <p>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在席議員 102名 中 贊成 76名, 反對 없고, 棄權 26名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選任은 배부하여 드린 名單內容과 같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				
<p>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명단안</p>					
위원회별	위 원 명	연 령	소속정당	출 신 지 역 구	비 고
내 무	김 명 곤	48	국민회의	강 동 제4	
	김 중 구	41	국민회의	영등포 제6	
	김 종 래	41	국민회의	강 서 제1	
재무경제	김 광 순	45	국민회의	중 랑 제4	
	박 남 식	61	민 주 당	서 초 제5	
	양 경 숙	33	국민회의	중 로 제2	
생활환경	안 병 소	49	민 자 당	강 남 제1	
	이 성 호	32	국민회의	중 로 제1	
	정 진 우	43	국민회의	도 봉 제3	
	정 태 중	48	국민회의	동대문 제5	
보건사회	박 시 하	50	국민회의	중 랑 제1	
	이 달 원	34	국민회의	노 원 제6	
	홍 승 채	34	국민회의	성 등 제4	

위원회별	위 원 명	연 령	소속정당	출 신 지 역 구	비 고
수자원관리	고 용 진	30	국민회의	노 원 제1	
	유 기 중	47	민 자 당	강 서 제4	
	이 강 욱	51	국민회의	서대문 제2	
	지 창 수	52	민 주 당	동 작 제2	
문화교육	김 형 근	43	국민회의	광 진 제1	
	임 중 화	43	국민회의	마 포 제4	
건 설	김 성 수	51	국민회의	강 북 제3	
도시정비	이 강 진	33	국민회의	관 악 제4	
	이 두 학	71	민 자 당	비 례 대 표	
	이 용 부	42	국민회의	송 파 제3	
교 통	김 성 춘	53	민 주 당	송 파 제7	
	이 윤 중	41	국민회의	마 포 제3	
	이 시 영	41	국민회의	성 북 제6	
	황 병 오	44	국민회의	은 평 제5	

2.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

(10時 45分)
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이번 第81回 臨時會에서 市政質問은 오늘부터 3日間 모두 17名의 議員께서 質問을 하시게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섯 분 議員님의 質問이 있겠습니다.

會議進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섯 분 議員의 質問을 모두 마친 후에 執行部側의 答辯을一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

(「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

質問하시는 議員께서는 發言時間 15分을 지켜 주시고, 執行部에서는 충실한 答辯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.

그러면 지금부터, 質問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劉大運議員님으로부터 議事進行發言申請이 있었습니다. 劉大運議員님 나오셔서 發言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劉大運議員 江北區 第4選舉區 出身 國民會議 所屬 劉大運議員입니다.

이 자리에, 市政質疑 첫날 本議員은 굳이 議事進行發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尊敬하는 先輩·同僚議員 여러분, 이 자리는 千百萬 서울特別市民을 代辯을 하는 機關이고, 모든 問題에 대해서 활발히 討論을 하는 그런 機關이올시다. 아무리 多數議席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40年 가까이 지켜보는 저 汝矣島의 國會 現場에서 보듯이 이렇게 議會를 進行하면 안 됩니다.

여기는 討論의 場이요, 議事進行과 身上發言은 一黨獨裁時節에서도 國會에서도 허용했던 그런 事案이올시다. 이 횡포에 가까운 이런 現實 속에서 과연 서울市議會 議員으로서, 國民會議 所屬으로서 계속 議政活動에 임해야 하는지, 本議員은 身上에 위대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.